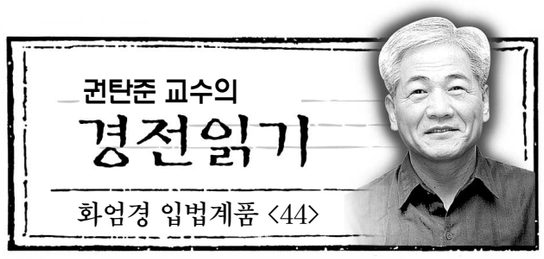


바수밀다녀의 법문

자비심 가지고 중생세계 들어가 교화
오염된 마음없이 탐욕 없애는 道 실현

선재동자가 찾아가는 53선지식 중에서 가장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것이 바로 바수밀다녀이다. 왜냐 하면 그녀가 거리에서 몸을 파는 유녀(遊女)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선재동자는 남쪽에 있는 험난(險難)이라고 하는 나라의 보장엄성(寶莊嚴城)에 이르러 바수밀다 여인을 두루 찾아다녔다. 그것을 보고 바수밀다녀의 공덕과 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동자는 지혜가 명철하고 미혹하지도 않아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이 여인에게 반하지도 않고 탐욕의 수렁에 빠지지도 않을 터인데, 무슨 뜻으로 이 여인을 찾고 있을까?' 하고 의아해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지혜가 있는 줄을 아는 이가 있어서 선재동자에게 '그대가 이 바수밀다 여인을 찾으니, 그대는 이미 광대한 좋은 이익을 얻은 것과 같다' 고 하면서 그녀가 성 안의 저자 북쪽에 있는 자기의 집에 있다는 것을 알려 주었다.

선재동자가 그녀의 집에 이르러 그 집을 보니 거대한 누각이 여기저기 세워져 있고 화려하고 아름다움은 이루 말할 수 없고 한량없는 보배로 훌륭하게 꾸며져 있었다. 그녀의 용모를 보니 단정하고 모습이 원만하여 욕계(欲界)의 사람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다. 모든 중생의 갖가지 말을 모두 알고 있었고, 문장을 잘 알고 언론이 능란하며, 환술(幻術)과 같은 지혜를 얻어 여러가지 방편에도 통달하였다. 선재동자가 그녀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 나서 보살행을 배우고 보살도를 닦는 법을 묻자,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선남자여, 나는 보살의 해탈을 얻었으니 이름은 '탐욕의 경계를 여읨' 이다. 그들의 욕망을 따라 몸을 나타내는데, 하늘이 나를 볼 적에는 나는 천녀의 형상이 되어 광명이 훌륭하여 비길 데 없게 된다. 그와 같이 사람이나 사람 아닌 이가 볼 적에는 나도 사람과 사람 아닌 이의 여인이 되어 그들의 욕망대로 나를 보게 한다.

또한 어떤 중생이 애욕에 얽매여 나에게 오는 경우에, 내가 그에게 법을 말하면 그가 법을 듣고는 탐욕이 없어지고 보살의 집착 없는 경계의 삼매를 얻게 된다. 어떤 중생이 잠깐만 나를 보아도 탐욕이 없어지고 보살의 환희삼매를 얻는다. 어떤 중생이 잠깐만 나와 말하여도 탐욕이 없어지고 보살의 걸림없는 음성삼매를 얻는다. 어떤 중생이 잠깐만 내 손목을 잡아도 탐욕이 없어지고 보살의 모든 부처 세계에 두루 가는 삼매를 얻는다. 어떤 중생이 내 자리에 잠깐만 올라와도 탐욕이 없어지고 보살의 해탈한 광명삼매를 얻는다. 어떤 중생이 잠깐만 나를 살펴보아도 탐욕이 없어지고 보살의 고요하게 장엄한 삼매를 얻는다. 어떤 중생이 잠깐만 나의 활개 뻗는 것을 보아도 탐욕이 없어지고 보살이 외도를 굴복시키는 삼매를 얻는다. 어떤 중생이 내가 눈을 깜빡이는 것을 보기만 하여도 탐욕이 없어지고 보살의 부처 경계의 광명삼매를 얻는다. 어떤 중생이 나를 끌어안으면 탐욕이 없어지고 보살의 모든 중생을 거두어 주고 항상 떠나지 않는 삼매를 얻는다. 어떤 중생이 나와 입술을 한 번만 맞추면 탐욕이 없어지고 보살이 모든 중생의 복덕을 늘게 하는 삼매를 얻는다. 이와 같이 나에게 가까이 하는 중생들은 모두 탐욕을 여의는 경계에 머물러 보살의 온갖 지혜가 앞에 나타나는 걸림없는 해탈에 들어간다."

바수밀다 여인이 설하고 있는 '탐욕의 경계를 여읜 해탈' 법문은 보살이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자비심을 가지고 중생세계에 직접 들어가서 그들을 교화하는 내용에 관한 것이다. 이것은 그녀가 '중생의 욕망에 따라서 몸을 나타낸다' 고 하는 데에도 잘 나타나 있다.

진실로 그녀는 보살이 세상에 수순해서 세상 사람들을 인도하는 방편 지혜의 완성자라고 할 수 있다. 그녀는 세속의 오염된 법을 행하여 보이면서도 자신 스스로는 일념(一念)도 오염된 마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타인들도 오염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녀는 탐욕을 가지고 자신을 찾아온 중생들을 교화해서 오히려 탐욕에서 떠나도록 하는 것이다.

그녀가 살고 있는 나라의 이름이 '험난' 인 것은 중생들의 탐욕세계를 의미하고, 머무르고 있는 나라의 이름이 '보장엄' 인 것은 진실한 행이 안으로 갖추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 '바수밀다(Vasumitra)' 는 세우(世友) 또는 천우(天友)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녀가 교묘하게 모든 세상 사람들을 이끌어 들여서 그들을 교화하기 때문이다.

바수밀다 여인과 같이 탐욕의 중생세계에 가서 거기에 물들지 않고 중생들을 제도한다는 것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보리심을 발하여 진정한 중생제도를 발원한 보살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바수밀다 여인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원력을 가지고 중생세계로 몸소 나아간 진정한 보살인 것이다.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선의 세계 ⑰

견성성불(見性成佛)-5

이미 있던것 알고 확인할 뿐

성불(成佛)이라 하면 '부처를 이룬다' 는 말이니 '부처로서의 경지를 이룩한다' 는 뜻이겠고 그냥 간단하게 말하자면 '부처가 된다' 고 하면 되겠다. 그러나 전회의 글에서 언급했듯이 선(禪)에서 말하는 견성성불의 성불은 부처가 아니었다가 비로소 부처가 된다기보다는, 자기가 워낙 이미 부처였음을 확인하는 것이다. 달리 말하자면 자기의 본래 정체를 깨닫는 것이다. 자기에게 없던 새로운 정체성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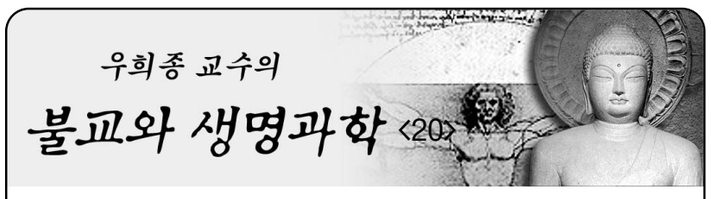
선종에서 깨달음 또는 성불을 두고 무소득(無所得)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무소득이라 하면 얻는 바가 없다는 뜻이니, 깨닫는다, 성불한다 하여도 실상은 깨달음을 얻는다거나 부처의 경지를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경전에도 해탈 또는 열반은 불가득(不可得)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같은 취지이다. 이를 두고 문외한들은 엉뚱하고 웃기는 해석을 하기도 한다. 즉, 거 봐라, 불교에서는 깨달음, 해탈, 열반, 성불, 이런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다고 하면서 결국 그런 것은 얻을 수 없다고 불교 스스로 인정하지 않느냐, 그러니 불교에서 늘어놓는 그 숱한 법문이 결국에는 다 헛소리가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불가득, 무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들이 풀이하듯이 '얻을 수 없다', '얻는 것이 없다' 는 뜻이 아니다. 깨달음 또는 부처의 지위는 얻고 말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다.

자기에게 없던 것을 밖으로부터 가지고 와서 새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이미 있던 것을 알게 되고 확인할 뿐이라는 얘기이다.

선사들의 어록을 보면, 부처를, 또는 깨달음을 바깥에서 구하지 말라는 말이 누누이 나온다. 그 예는 무수하게 들 수 있다. <육조단경(六祖壇經)>에서는 "부처는 자기의 성품이 짓는 것이니, 몸 밖에서 구하지 말라" 고 하였다. 마조(馬祖)스님과 대주혜해(大珠慧海)스님이 나눈 이야기도 한 예가 된다. 혜해스님이 처음 마조스님을 찾아와 참례하니 마조스님이 혜해스님에게 뭘 찾아왔느냐고 묻는다. 불법(佛法)을 구하려 한다고 대답하자, 마조스님은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자기의 보배창고는 살피지 않고서 집을 버리고 사방으로 치달려 무엇하려느냐." 그러자 혜해스님이 다시 묻는다. "무엇이 저의 보배창고라는 말씀입니까?" 이에 대한 마조스님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바로 지금 나에게 질문을 하는 바로 그 놈이 그대의 보배창고이다. 거기에 이미 일체가 다 갖추어져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작용이 자유자재하니 어찌 밖에서 구할 필요가 있겠느냐?"

보조국사(普照國師) 지눌(知訥)스님이 말한 회광반조(回光返照)라는 개념도 바로 그런 뜻이다. 우리는 모든 것을 늘 자기 밖에서 구하는 버릇이 있다. 그래서 촉각을 잔뜩 곤두세우고는 관심을 바깥으로만 내뻗는다. 부처의 경지나 깨달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나는 깨닫지 못했으며 부처가 아니라는 도무지 깨지지 않는 확신을 가지고, 깨달음과 부처를 저 밖의 어디에 있는 것으로만 여긴다. 그렇게 밖으로만 치닫는 서치라이트 빛을 되돌려 자기 자신을 비추어보라는 것이 회광반조의 뜻이다. 바로 거기에 이미 깨달음을 지니고 있으며(本覺) 이미 부처로서의 정체(佛性)를 담고 있는 보배창고가 있는데 왜 자꾸만 바깥으로 나돌아다니며 수고하느냐는 것이다. 그래서 직지인심 견성성불, 즉 여기 저기 집적거릴 필요 없이 곧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 질러 들어가 자신의 본래면목을 보니, 바로 자기 자신이 그대로 부처라고 하는 선종의 구호가 성립한 것이다.

■윤원철 서울대학교 교수 · 종교학



공감과 수용

현상의 모든 것은 관계로 말미암아 다만 그러한 작용이 펼쳐질 뿐 고정된 실체가 없음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그러한 관계로는 나와 나, 나와 너, 나와 세상 등으로서 그 중심에는 항상 내가 있기에 무엇보다도 참된 이 세상의 모습을 알기 위해서는 나 스스로를 돌아보아 원래의 한 마음자리로 돌아가도록 우리는 소위 마음공부라는 것을 하고 있다.

불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심우도(尋牛圖)의 마지막 그림도 이를 잘 나타내고 있는데, 결코 마음공부란 우리의 일상의 삶을 떠나 어디 먼 하늘나라에 가서 펼치는 신통방통한 것도 아니며 깊은 산 속에서만 펼칠 수 있는 그런 힘없는 공허한 공부도 아니다.

서로 공감못하기에 삶의 문제들 발생
아상 내려놓아야 무조건적 수용 가능

우리의 공부가 이러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과연 나는 타인을 어디까지 공감, 수용하며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이다. 대부분 우리들은 공감할 수 있는 상대방을 수용하게 된다. 자신의 관점이나 기준으로 보아 공감할 수 있을 때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 부모 자식 간의, 부부간의, 직장 내의 많은 갈등과 문제는 서로 공감되지 못하기에 서로를 수용하지 못하고 화합하거나 타협하지 못하며 서로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제대로 된 마음공부를 통하여 자기의 기준이나 관점으로 표현되는 아상(我相)을 내려놓아 부처님 말씀에 따라 여법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상태일 것인가. 그것은 나의 기준이나 관점이 선행되어 이루어지는 공감을 통한 수용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다.

즉, 내가 이해하여 공감할 수 있어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인 선악(善惡)마저 뛰어 넘는 무조건적인 수용인 것이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이 가능한 것은 사랑과 자비를 통한 평등심으로서만 가능한 것으로, 마음공부 하는 이들은 진정 아상을 내려놓고 진정한 진리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 가능하게 된다.

예수님이 간음한 여자를 수용하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자는 던져보라고 한 이야기나 부처님께서 살인자를 수용하여 깨달음으로 이끄는 많은 이야기도 그러한 점을 잘 나타내고 있다.

서로 공감못하기에 삶의 문제들 발생
아상 내려놓아야 무조건적 수용 가능

우리의 공부가 이러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과연 나는 타인을 어디까지 공감, 수용하며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이다. 대부분 우리들은 공감할 수 있는 상대방을 수용하게 된다. 자신의 관점이나 기준으로 보아 공감할 수 있을 때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 부모 자식 간의, 부부간의, 직장 내의 많은 갈등과 문제는 서로 공감되지 못하기에 서로를 수용하지 못하고 화합하거나 타협하지 못하며 서로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제대로 된 마음공부를 통하여 자기의 기준이나 관점으로 표현되는 아상(我相)을 내려놓아 부처님 말씀에 따라 여법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상태일 것인가. 그것은 나의 기준이나 관점이 선행되어 이루어지는 공감을 통한 수용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다.

즉, 내가 이해하여 공감할 수 있어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인 선악(善惡)마저 뛰어 넘는 무조건적인 수용인 것이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이 가능한 것은 사랑과 자비를 통한 평등심으로서만 가능한 것으로, 마음공부 하는 이들은 진정 아상을 내려놓고 진정한 진리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 가능하게 된다.

예수님이 간음한 여자를 수용하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자는 던져보라고 한 이야기나 부처님께서 살인자를 수용하여 깨달음으로 이끄는 많은 이야기도 그러한 점을 잘 나타내고 있다.

서로 공감못하기에 삶의 문제들 발생
아상 내려놓아야 무조건적 수용 가능

우리의 공부가 이러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과연 나는 타인을 어디까지 공감, 수용하며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이다. 대부분 우리들은 공감할 수 있는 상대방을 수용하게 된다. 자신의 관점이나 기준으로 보아 공감할 수 있을 때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 부모 자식 간의, 부부간의, 직장 내의 많은 갈등과 문제는 서로 공감되지 못하기에 서로를 수용하지 못하고 화합하거나 타협하지 못하며 서로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제대로 된 마음공부를 통하여 자기의 기준이나 관점으로 표현되는 아상(我相)을 내려놓아 부처님 말씀에 따라 여법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상태일 것인가. 그것은 나의 기준이나 관점이 선행되어 이루어지는 공감을 통한 수용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다.

즉, 내가 이해하여 공감할 수 있어서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인 선악(善惡)마저 뛰어 넘는 무조건적인 수용인 것이다. 이러한 인간에 대한 무조건적인 수용이 가능한 것은 사랑과 자비를 통한 평등심으로서만 가능한 것으로, 마음공부 하는 이들은 진정 아상을 내려놓고 진정한 진리에 대한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 가능하게 된다.

예수님이 간음한 여자를 수용하면서 돌을 던질 수 있는 자는 던져보라고 한 이야기나 부처님께서 살인자를 수용하여 깨달음으로 이끄는 많은 이야기도 그러한 점을 잘 나타내고 있다.

서로 공감못하기에 삶의 문제들 발생
아상 내려놓아야 무조건적 수용 가능

우리의 공부가 이러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은 과연 나는 타인을 어디까지 공감, 수용하며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가이다. 대부분 우리들은 공감할 수 있는 상대방을 수용하게 된다. 자신의 관점이나 기준으로 보아 공감할 수 있을 때 상대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많은 문제들, 부모 자식 간의, 부부간의, 직장 내의 많은 갈등과 문제는 서로 공감되지 못하기에 서로를 수용하지 못하고 화합하거나 타협하지 못하며 서로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

제대로 된 마음공부를 통하여 자기의 기준이나 관점으로 표현되는 아상(我相)을 내려놓아 부처님 말씀에 따라 여법하게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상태일 것인가. 그것은 나의 기준이나 관점이 선행되어 이루어지는 공감을 통한

남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나 오직 간택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잘 들여다보면 이러한 무조건적인 수용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러한 무조건적인 수용을 무조건적인 공감과 혼동해서는 안된다. 예수도 스스로 수용하며 감싸준 간음한 여인에게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하며, 부처님도 살인자를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곧 살인에 대하여 공감한 것은 아닌 것이다. 이렇듯 공부가 무르익으면 세상인들은 이해하지 못할지언정 상대방을 가려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 마음으로부터 평등심으로 받아들이게 되니 스스로의 공부를 돌아볼 때 점검하는 부분으로 삼아도 좋을 것이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봉인사 11월 수련안내

1. 자비수관(慈悲手觀) 수련

- ◆ 지, 수, 화, 풍, 공 의 오대 관법을 통한 위빠사나와 티벳 밀교계통의 혼합수행
- ◆ 안 내 : 지운스님(전 송광사 강주)
- ◆ 일 시 : 11월 22일(토) 오후 3시부터 28일(금)까지 (6박7일)
- ◆ 준 비 물 : 간편복장, 필기도구, 세면도구
- ◆ 수련비용 : 20만원(교재비 포함)

2. 다도(茶道)수련안내

- ◆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쉬운 다도를 일주일간 매일 한시간 반 동안 공부합니다
- ◆ 전 불교 TV에서 강의하셨던 내용을 수행법에 맞춰서 합니다
- ◆ 안 내 : 지운스님(전 송광사 강주)
- ◆ 일 시 : 11월 23일(일)오후 1시 반부터 28일까지 매일 출퇴근 가능
- ◆ 동참금 : 5만원

(교재비 별도/ 교재는 "찻잔속에 달이 뜨네"-봉인사에 비취되어있슴)

* 문 의 : 031) 574-5585

WWW. bonginsa.net / bonginsa@bonginsa.net

봉인사 한길정진원

간(肝)이 염간 지방간 간경화 …

건강해야 장수할 수 있습니다.

지리산자락 신비의

참다슬기 농축액

토종 웅담과 비길만한 자연산 참 다슬기로 삶의 활력을 찾으세요.
지리산 자락 청정 지역에서 서식하는 자연산 참다슬기만 가지고 전통재래식(가마솥) 방법으로 달인 참다슬기 농축액은 상쾌한 하루를 열어줍니다.

▣ 다슬기 농축액: 지리산 자락 계곡 맑은 물에서 채취한 참 다슬기와 구슬알 다슬기를 죽은 것과 빈 껍데기를 골라 내어 깨끗이 씻고 해금 시킨다. 다음 다슬기 10kg을 분쇄하여 가마솥에 넣고 전통비법으로 다슬기 속살이 녹을때까지 48시간을 다린다. 여기 마늘, 생강, 대추를 넣고 24시간을 더 달입니다. 농축액은 60포 단위로 포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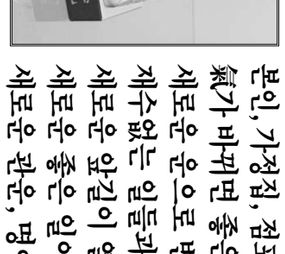
▣ 다슬기 기름: 다슬기 15Kg을 항아리에 넣고 왕겨 9가마니를 덮은 뒤 왕겨에 불을 붙여 그 열로 다슬기가 땅속에 묻어둔 빈 항아리에 녹아 흘러내리게 합니다. 다슬기 기름을 만드는데 왕겨가 다 타들어 가기까지 꼬박 8~9이 걸립니다. 한달분은 1.8리터입니다.

『농축액을 개발하여 KBS TV "6시 내고향"에 방영된 이래로 "생방송 좋은아침" MBC TV "고향은 지금" 조선일보, 중앙일보에 소개 됨』

자료신청 : 055) 963-9583 · 상담문의 : 055) 355-5626

산마을 토종 (민속농원)

명당을 만들어 주면 운이 바뀝니다 명당 육氣방



아무리 할려구 노력해도 안되시면
집터나 공장터나 조상 묘지터를
불화와 우환이 사라지고 하시는

신비의 황금보물 **명당육氣방 051)865-9933**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육氣방은 각 사찰, 암자, 철학관에만 있습니다.

氣덩어리 복덩어리 황금덩어리 氣가막힌 복이들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氣가 바뀌면 좋은 운으로 바뀝니다.
새로운 운으로 변하면
재수없는 일들과 불화와 액운이 사라지고
새로운 앞길이 열리며
새로운 좋은 일이 있게 되고
새로운 관운, 명예, 재물운이 옵니다.